

## 2. 우리나라의 對아세안5 수출 특징 및 향후 전망

(조사국 국제무역팀)

1. 우리나라의 對아세안5 수출은 2010년 이후 여타 수출대상국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아세안5 지역은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미국·일본 등의 주요국 기업들에게도 국외 생산거점이자 수출시장으로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동 지역이 2023년 우리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 번째<sup>1)</sup>로 높아졌으며, 對아세안5 무역수지 흑자규모 역시 2019년 이후 對중 흑자규모를 크게 넘어섰다. 또한, 다국적 기업들이 ①중국의 생산비용 급증, ②지경학적 분절화 영향, ③소비시장으로서의 높은 잠재력 등을 이유로 아세안5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늘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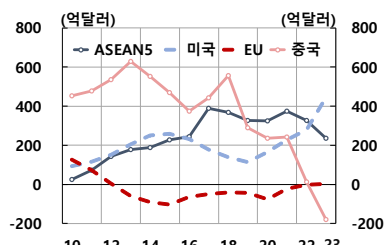
2. 우리나라의 對아세안5 수출은 대중 수출과 유사하게 중간재가 대부분이고 소비재 비중은 매우 낮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우리의 對아세안5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이고 석유제품·화학품 등 여타 중간재 비중도 60% 이상의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식품·의복 등 최종재는 5% 수준에 불과하다. 이 같은 중간재 위주의 수출구조는 우리 기업들의 對아세안5 투자가 현지시장 진출 horizontal FDI 목적보다는 생산비용 우위에 기반한 수직적 생산분업 vertical FDI의 성격이 강한 데 따른 것이다.

3. 아세안5로 수출된 우리 중간재의 약 절반 정도는 해당지역에서 최종수요(소비, 투자)되며, 나머지는 가공된 후 미국(소비재), 중국(중간재) 등으로 수출된다. 아세안5 국가들의 수출구조를 보면, 對미 수출에서는 식료품, 의복 등 소비재 비중이 높은 반면 對중 수출은 석유화학, 금속·비금속 등 중간재 비중이 높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對아세안5 수출은 미국의 소비지출, 중국의 산업생산과 연계성이 높다.<sup>2)</sup> 특히 2010년 중반 이후에는 미국 소비의 영향이 크게 확대되었다.

4. 우리 對아세안5 수출은 지난해 3/4분기부터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부진이 완화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IT경기 회복세 지속, 양호한 미국 경제성장세 등으로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아세안5의 글로벌 생산거점 기능이 갈수록 공고해지면서 중장기적으로 해당 지역내 수입시장에서 시장점유율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 주력 중간재의 질적 고도화에 힘쓰는 한편, 양질의 소비재 수출 증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 對아세안5 무역흑자는 對중적자를 완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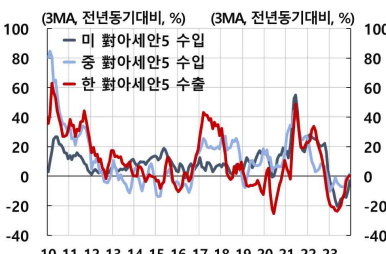
<국가별 무역수지>



자료: 관세청

우리 對아세안5 수출은 미국 및 중국의 수입수요와 높은 연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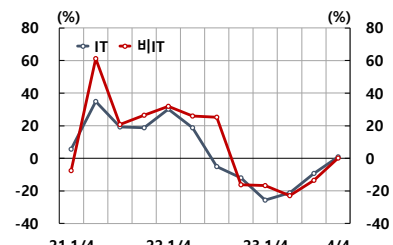
<우리 對아세안5 수출과 미·중의 對아세안5 수입>



자료: 무역협회

최근 對아세안5 수출은 IT와 비IT 모두에서 부진이 완화

<최근 對아세안5 수출 증가율>



자료: 관세청

1) 개별국가 기준으로 아세안5 국가들중 베트남은 우리 총수출에서 8.5%를 차지하여 중국(19.7%), 미국(18.3%)에 이어 우리의 제3위 수출국이다.

2) 우리나라의 對아세안5 수출과 미국 소비지출·중국 산업생산과의 상관관계

	2010~2015년	2016~2023년		2010~2015년	2016~2023년
미국 소비지출	0.15	0.51	중국 산업생산	0.81	0.54